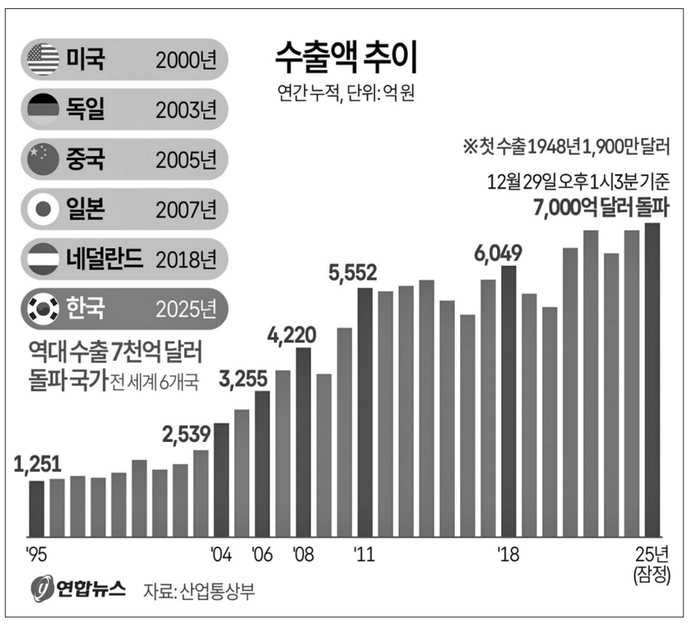
K-수출 7000억달러 시대 열다…세계 6번째



1948년 첫 수출 이후 77년만
美 관세 위기 딛고 뒷심 발휘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중기도 연간 최대실적 경신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이며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달러, 2004년 2000억달러,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

수출 7000억달러는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수출 6000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달러는 프랑스를 제치고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948년 수출액 1900만달러에서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000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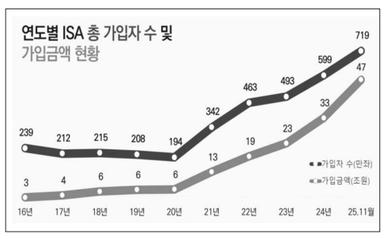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가 대폭 유입돼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ISA 700만명 돌파…올들어 월평균 11만명 가입

투자중개형 85.4%…전연령대 가입 증가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출시 9년 8개월 만에 7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말 600만명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매월 약 11만명이 ISA에 가입한 셈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국내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ISA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형'은 2020년 말 171만9000명이었던 가입자가 80만명이 감소해 지난달 말 91만9000명(12.8%)을 기록했다.

증권사나 은행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전문가에 맡기는 '일임형'도 같은 기간 22만명에서 13만4000명(1.9%)으로 8만6000명이 줄었다. 투자중개형 가입자금의 45.6%는 ETF, 33.4%는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93.0%, 일임형은 펀드가 9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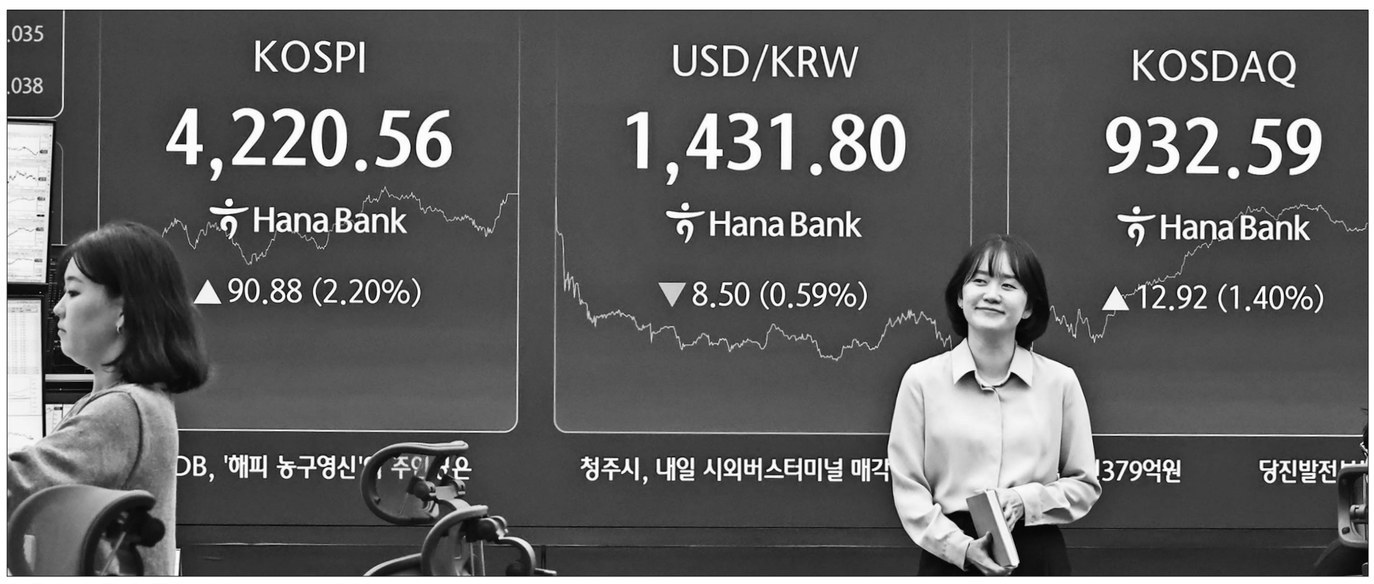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투자중개형의 인기로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617만3000명(85.9%)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은 101만6000명(14.1%)으로 2020년 말(178만3000명) 대비 43% 감소했다.

ISA는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 추세로, 특히 20·30세대 비중이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20년 말 32.8%에서 2025년 11월 말 40.7%로 눈에 띄게 늘었다.

전 연령층에서 투자중개형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20·30세대 92.8%, 40대 87.4%, 50대 이상 76.1%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신탁형 가입자도 21.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자 성별로는 20·30세대는 남성(남성 156만명, 여성 137만명)이, 50대 이상은 여성(여성 145만명, 남성 120만명)이 많았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손익의 통산과 절세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 해지 시점까지 과세 이연에 따른 추가적인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폐장일 하루 앞둔 코스피, 4220선 회복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88p(2.20%) 오른 4220.56에, 코스닥은 12.92p(1.40%) 오른 932.59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이철호 신임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현장 중심 경영…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이철호 신임 본부장(사진)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철호 본부장은 1971년 광주 출생으로, 문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농협중앙회 입사 후에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 본부장은 풍향동지점과 신탁부, NH-CA자산운용, 상호금융기획부를 거쳐 영암군지부 단장, 인사총무부 팀장, 기획실 국장, 전남검사국장, 원예수급부 국장, 인사총무부 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경영혁신처장으로 재직하며 조직 혁신과 경영 효율화 추진을 이끌어 왔다.

이철호 본부장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광주본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농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폐지

내달 1일 시행…기존 계약자 혜택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다음달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다음달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하반기 도농상생기금 4717억 지원

도시 농축협 출연…올해 총 8405억 규모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도시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도농상생기금 4717억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농상생기금은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해 온 기금이다. 올해는 이번 하반기 지원분을 포함해 총 8405억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전년 지원액(7910억원) 대비 495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국 228개 도시농축협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기금 출연이 이어지면서 도농상생의 취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자연재해와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발생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농상생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해 전국 농축협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역할 개편

통계→데이터…인재개발원·연구원·지방청 등 변경

국가데이터처가 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데이터처는 30일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전국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통계인재개발원은 그동안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통계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담당해 왔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전환되면 기존 통계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교육 목표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 분석 역량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AI·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준공한 AI·디지털학습관(채움관)을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연구원 역시 기존 통계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확대한다. 2006년 설립된 통계개발원은 그동안 각종 통계 개발과 통계 작성 방법론 연구, 데이터 과학 분야 연구를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통계 전문 연구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연구 과제에 AI와 최신 데이터 과학 기술을 접목하며 연구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직렬을 신설하고 데이터 전문가 충원을 지속해 왔으며, 국가데이터처 출범을 계기로 향후 데이터 과학 연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산하 5개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은 각각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으로 전환된다. 기존 통계조사 기능에 더해 지역 데이터 구축과 지역 간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각 소속기관이 그동안 축적해 온 AI·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성과와 통계·데이터 연계·융합 연구, 지역 데이터 협력 경험을 토대로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